

스웨덴 교과서 정책 및 교육 자료

2015-11-27

Capital of Scandinavia

교과서와 교육자료, 역사적 배경

- 약 1600년 경부터 교회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졌음.
- 교회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국가가 대신 통제함. (1832년의 교육법)
- 1938-1974, 전 교과서에 대한 국가 승인 제도
- 1974-1991, 오직 지리, 종교, 역사, 정치와 같은 사회과목에 대해서만 국가의 승인제도 적용
- 1991- 공식 승인제도는 없으나, 학교 관련 당국(스웨덴 교육청 및 스웨덴 교육감사청)에서는 아직도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며, 교과서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음.

1924년부터 1991년 간 국가의 역할

-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부합하는가?
 - 다른 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다루지 않았는가?
 - 교과서가 신뢰할만하고 객관적인가?
 - 학문적 수준은 충분한가?
 - 가격은 적당한가?
- 학교에서 선택 가능한 승인된 교과서 목록 공개.

1991년의 사건과 국가의 역할

- 지자체에서 학교 운영에 대해 거의 전적인 책임을 졌으며, 국가는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에 기술된 목표에 따라 학교를 관리해야 했음.
- 세부사항의 처리는 지방 당국이 담당했으며, 국가는 많은 책임을 위임하며 이전에 제공된 것과 같은 지원을 학교 측에 제공하지 않았음.
- 학교가 필요한 교과서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시장과 시장세력에 따라 결정되었음.
- 각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및 교육자료의 결정은 교장과 교사가 함께 결정했음.”교장은 학생이 학습에 필요로 한 교과서와 교육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.”

- 1994년의 교육과정 LPO94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지를 정의하지 않았음. 각 과목별로 무엇을 가르칠 지는 교사가 결정했음. 교육과정에는 과목별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지가 기술되었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었음.
- 90년대에는 교과서의 비중을 줄이고 학교에서 교육자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음. 이 경향은 90년대 경기침체 때문이었음. 학교는 많은 교육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, 많은 내용을 건너뛰어야 했다.
- 2011년 교육과정 LGR 11에는 전 과목별 주요 내용을 정의했음.
- 교사는 교과서 및 다른 교육자료를 어떻게 사용할까? 교사의 일상 업무에 있어 교과서와 교육자료는 어느 정도 경쟁관계였나? 모든 출처의 전 종류의 교육자료가 넘쳐나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교과서에 대한 미래는 존재할까?